

漆谷 松林寺 大雄殿

申 榮 勳

漆谷의 塼塔에 대하여는 解體修理를 通하여 많이 소개되었지만 法堂 大雄殿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一九七六년 겨울과 七七年도 二월에 옛 漆谷都護府의 邑城이던 八公山의 속칭 架山山城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 길은 松林寺 앞을 지나게 되었다. 두번째 架山에 가던 길에 松林寺를 견학하였다. 塼塔이 寺域 中心에 우뚝 솟았고 그북쪽으로 大雄殿이 있다. 塼塔은 重修 이후 로상태가 좋아 잘 보존되어 있다.

塼塔 東편에 또 한채의 법당이 西向하여 있다. 탑의 서쪽으로 寮舍가 있고 石燈이 있다. 또 주변에 여러 建物址가 있어 옛날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大雄殿은 옛날 金堂자리에 위치하였는지는 잡자기 알 수 없으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옛자리에 重建된 것이나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大雄殿의 平面은 구성이 짝 재미 있다. 前後面이 五간인데 御間은 넓고 左右挾間은 그보다 좁고 左右의 退間은 아주 좁아져서 御間에는 信枋木 놓고 分閣달고 좌우에 光窓을 설치하였고, 左右挾間에는 信枋木에

의 짝 여닫이를 달고 좌우에 창광을 설치하였으며 퇴간에는 광창 한짝만을 다랐다. 側面은 三間인데 이는 柱間이 똑같도록 等割하였다. 이런 평면 구성이나 門扉設置는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昌慶宮 明政殿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이며 明政殿에는 信枋木 없이 광창에 분합을 달았는데 여기서는 신방목을 특별히 설치하여 문짝과 창을 분명히 구획한 점이 다르다. 현재는 신방목만 남고 문설주는 없어서서 현재의 문짝은 後補物이다. 光窓도 바뀐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御間의 光窓은 꽃살무늬로 원금(圓錦)이며 분합은 빗살이다. 협간은 문짝이 소슬빗살인데 광창은 그냥 빗살이다. 퇴간의 광창은 우물모짜였다.

측면 前挾間에는 의 짝 여닫이를 달았는데 문짝은 중심에 놓였고 문설주 좌우로는 판벽을 쳤다. 미살문 위로는 천간에 걸쳐 가름한 광창을 빗살로 꾸며 설치하였다.

기둥 위로 창방과 평방을 놓고 다포계의 공포를 배설하였다. 外二出目 五包作이고 안으로는 三出目的 七包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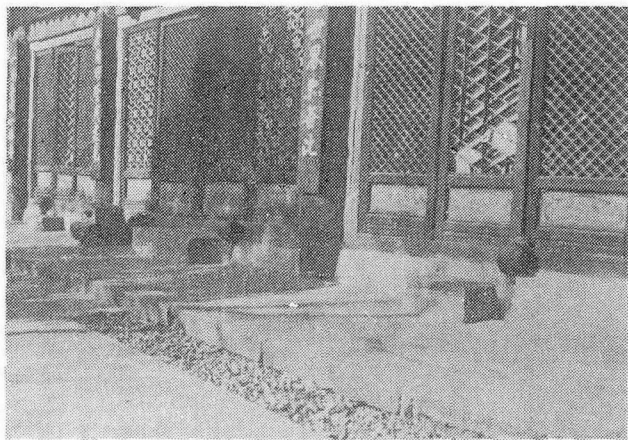
공포의 배열은 퇴간에서는 기둥 위에만 있고 좌우협간에서는 중앙에 하나가, 어간에서는 둘이 있어 마치 퇴간의 二배가 협간이 되고 협간에 퇴간을 합한 넓이가 御間이 된 듯이 보이게 된 점은 매우 흥미있는 구성이다. 많이 연구하고 고심한 흔적이 역연하다. 어느분인지 당시의 건축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집의 外貌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이는 또 하나 구조는 지붕이다. 다포계의 공포를 놓는 집의 지붕은 보통 팔작이거나 우진각이다. 이 집에서는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이런 공포양식에 맞배지붕을 씌우는 방법은 龍門寺 大藏殿처럼 앞뒤로만 공포를 배열하는 방식과 法住寺 四天王門(金剛門)과 같이 측면에도 공포를 배설하는 방식등이 있는데 이 대응전에서는 측면에 공포를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세부에 이르러면 이 대응전은 앞의 두가지 양식이 절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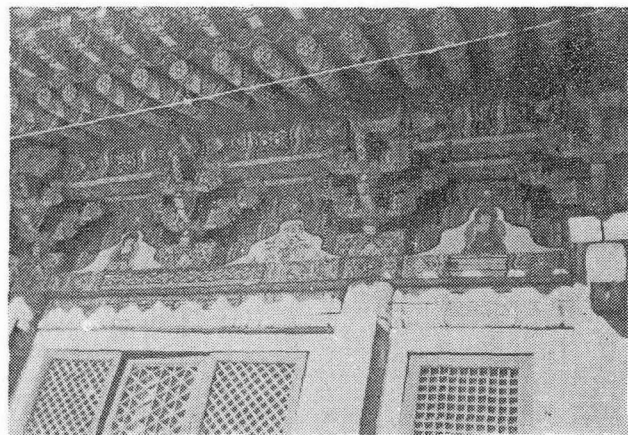
앞뒤로만 공포를 구성하는 경우에 측면은 보통 중심포집의 측면처리

방식에 따르는 것이 쉽게 막음되는 법식인데 이 대웅전에서서는 창방에 평방을 짜는 방식을 前後面과 同一하게 연장하고 있어서 龍門寺 大藏殿類와는 다르다. 法住寺 四天王門처럼 평방을 짜놓리는 것까지는 함께 하였는데 松林寺 大雄殿에서는 공포의 배열을 省略하였다. 좀처럼 보기 드문 遺例를 남기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또 이런 法式은 古式에 속한다 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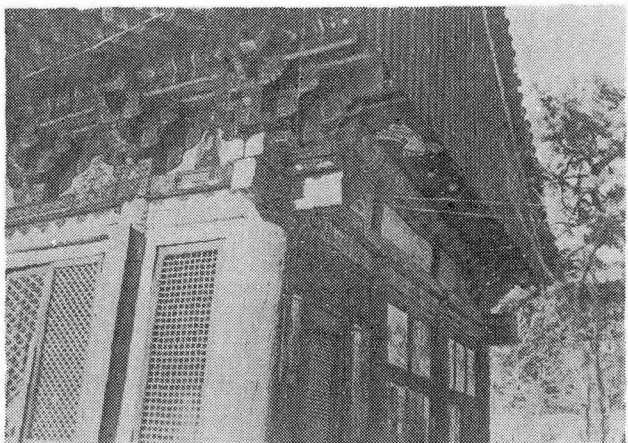
建物内部를 구성한 架構는 좀 더 재미있다. 佛壇의 後佛壁을 이루는 高柱가 建物中央線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大樑은 高柱에서 합보되었고 宗樑은 高柱에 의하여 중심에서 支撐되었다. 이런 架構樣式은 매우 드물다. 진물의 평면 크기를 半으로 줄여 쓰는 결과이므로 좀처럼 택하지



松林寺 大雄殿 前面의 各間과 信枋木, 문짝의 형태가 보인다.



松林寺 大雄殿의 공포 배열법은 殊異하여 주목된다



松林寺 大雄殿의 지붕구조
다로집에 맞배지붕 없는 또하나의 例

않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특이한 이 가구는 大樑上의 대공을 높직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공의 형상은 包臺工처럼 되었다. 開心寺 大雄殿類로 대공처럼 頭工形은 아니나 柱頭와 침차 소로로 구성된 원축만은 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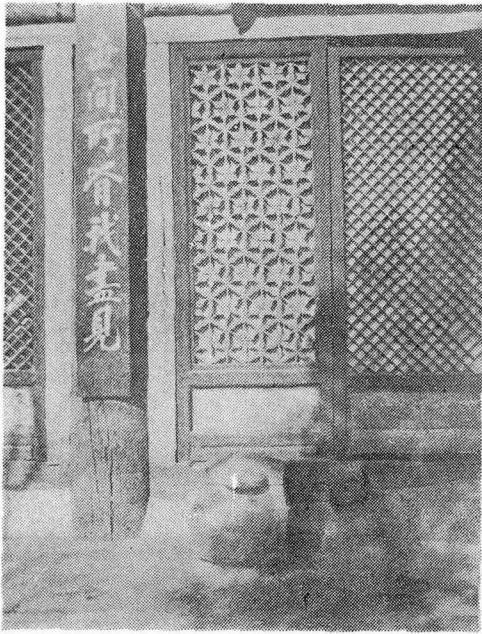
宗樑以上은 우물반자로 가렸다. 또 내 목도리에서 중도리까지는 빗 전장을 하였다. 이런 류의 빗전장도 傳燈寺 藥師殿등과 같은 오래된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우물반자는 측면간에 이르러서도 계속된다. 지붕이 맞배이면서도 측면간에 이런 높이로 우물반자를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방식이다. 측면 평방 위에 공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된 공간을 막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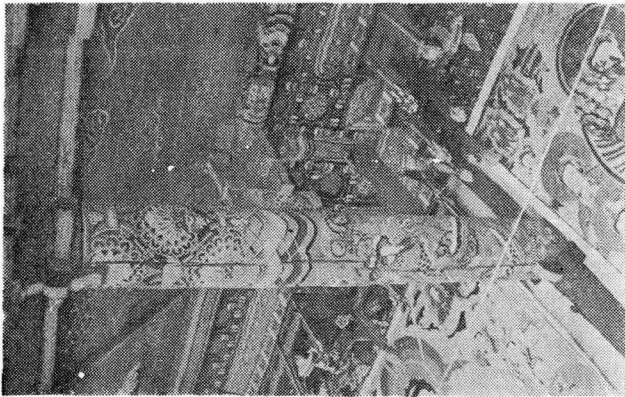
佛壇에는 三軀의 坐佛이 모셔졌다. 낮은 佛壇을 三間 넓이로 길게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臺座를 놓아 부처님을 모셨는데 대좌의 궁판에는 透刻된 연꽃 무늬가 화려하게 자리잡았고 佛壇에도 그런 寸장을 하여 佛堂 전부가 매우 화사하고 장엄하다.

부처님 뒤로는 高柱後佛壁에 거대한 幀畫가 걸렸고 부처님 위로는 소박하지만 화려한 닫집이 따로 시설되었다. 建物內外로는 갖은 錦丹青이 배풀어졌다. 그런 丹青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모루긋기하고 또긋기만으로도 처리하여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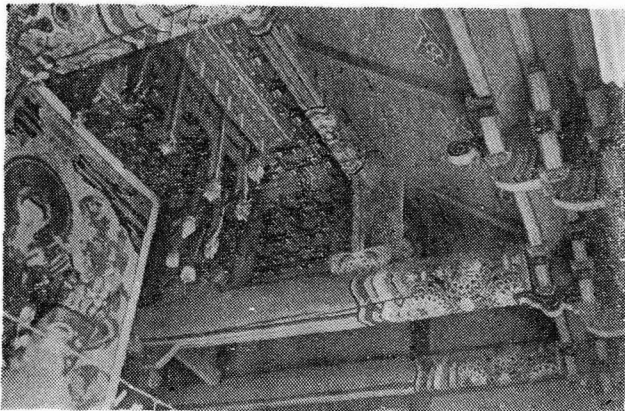
이런 내용의 집은 遺例가 없으면 이야기만으로는 虛構라고 웃어 넘길



松林寺 大雄殿의 문짝과 光窓
광창아래 石造物은 塼塔에서 나온 石函임



大樑이 高柱에서 합보된 상태



우물천장과 빗천장이 보인다.

것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집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는다. 이 땅에 全歷史期間 수 많은 집이 造管되어 왔다. 그 많은 집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나를 우리는 모른다. 겨우 남겨진 얼마의 遺例에서 그런 집들의 類形을 짐작하여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특수한 구조를 갖은 집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특수구조의 집의 존재를 우리는 이런 松林寺 大雄殿과 같은 遺例를 바탕으로 추구하여 볼 수 있다. 만일 지금 이 건물에 없어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추구는 基盤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라도 이 집은 保存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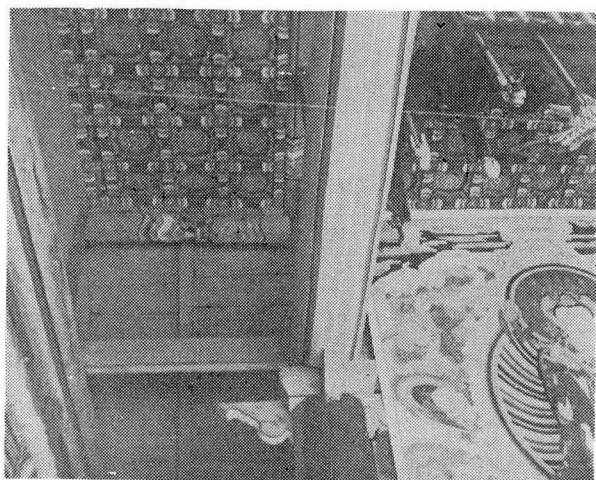
松林寺에 塼塔이 있어 유명하고 전탑에 매혹되어 法堂의 建造物을 지

考古美術—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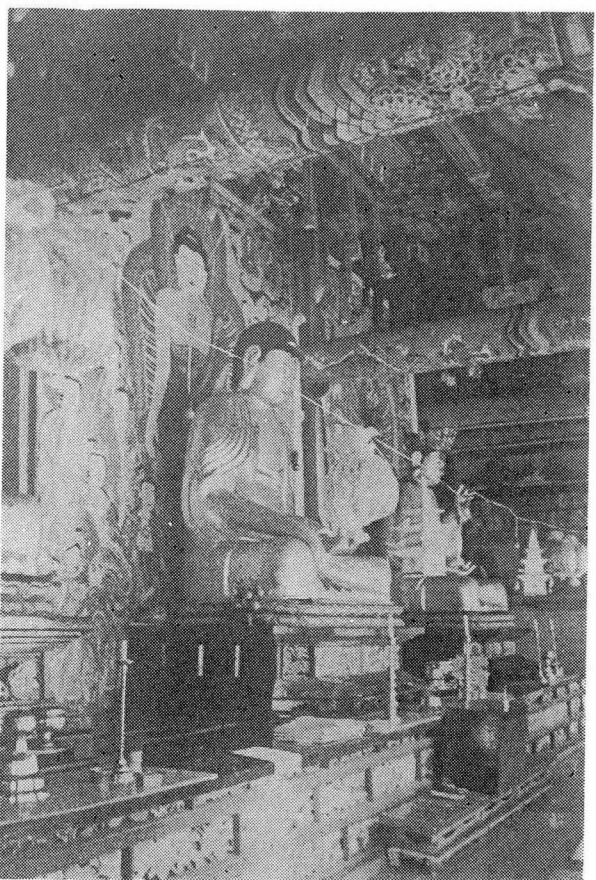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十次會議

一九七六年 一二月 一五日下午二時 文化財管理
局 會議室에서 趙明基 金元龍 任昌淳 崔淳雨 黃壽
永 李瑄根(黃壽永委員에 委任)과 文化財管理局長
文化財管理官 申榮勳專門委員이 참석하고 趙明基委
員長의 司會로 會議가 개최되었다.

報告事項



—측면간에도 설치된 우물반자의 모습



佛堂內部的 佛壇과 佛像과 닷집과 단청된 모습

나치기 쉬
우나 실상
이 大雄殿
이야말로
이야말로
磚塔에 못
지 않은 귀
중한 학술
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
다.
(文化財專
門委員文化
財管理局)

本委員會 第九次 會議錄을 報告하여 異議없이 通過
함.

審議決定事項

1 高敞 粉靑沙器窯址

全北 高敞郡富安面수동리 所在 粉靑沙器窯址를

史蹟으로 指定키로 審議決定함.

(1) 所在地…全北高敞郡富安面수동리 산 一 番地

(2) 指定名稱…高敞 粉靑沙器窯址

(3) 文化財種別…史蹟

(4) 調査者…國立中央博物館 首席學藝研究官 鄭

良謨

(5) 指定事由…一五世紀後半에서 一六世紀로 推
定되는 우리나라 粉靑沙器가 마로서 光州 無等
山가마와 함께 규모가 크고 다양한 代表的 가마
이며 窯址 五—六基와 약 四千坪되는 지역에 가마
와 陶片이 있음.

2 現代 黎明期 洋式전술 文化財 指定

서울市內에 所在한 現代 黎明期(一九〇〇年度前
後) 양식 건물인 明洞聖堂等 八件의 文化財 指定은
調査報告書를 各委員이 檢討後 次期會議에서 審議
토록 함.

3 景福宮 保護區域內 建物改築